

크리스 스탬리가 전하는 '만듦'의 감동 터칭 타임 Touching Time

필자는 2019년 여름 뉴욕 맨하탄의 그리니치 포터리 갤러리에서 미국 도예계에 널리 알려진 도예작가 크리스 스탬리의 전시를 관람했다. 오프닝 리셉션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그와 함께 전시장을 돌아보며 작품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의 영향력은 미국 현대도자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아티스트들과 대학 교수 등의 제자former students들을 통해 증명된다. 전시회로부터 일 년을 훌쩍 넘긴 가을, 2020년 11월 필자는 온라인 영상채팅 줌Zoom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글은 그리니치 포터리에서의 개인전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쓴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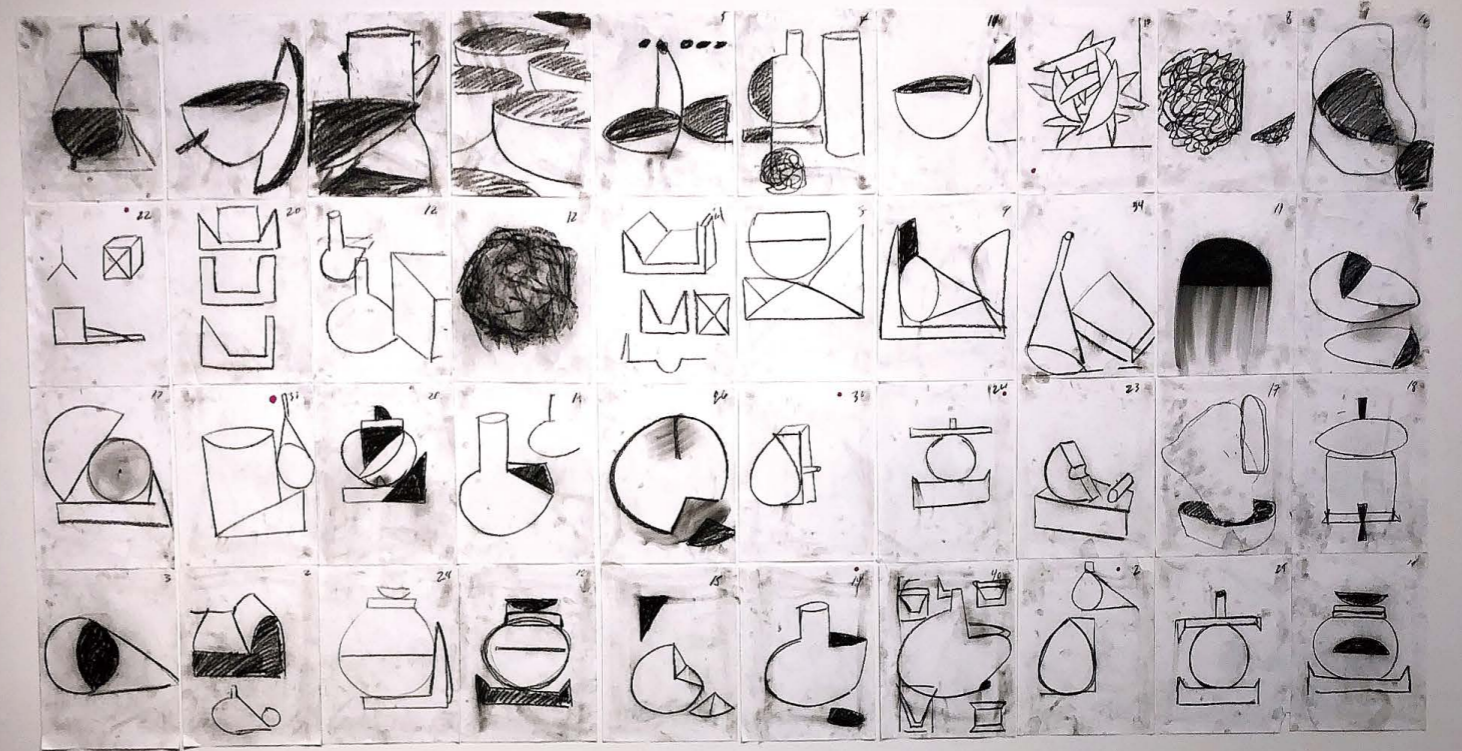
그리니치 하우스 포터리Greenwich House Pottery는 뉴욕 맨하탄 지역 도자 예술의 산실로, 지역 예술가들이 작업을 하는 곳으로 잘 알려진 장소이다. 이곳은 스튜디오와 갤러리를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이며, 게릿 그림 Gerit Grimm과 샘 청Sam Chung 등 미국 유명 작가들의 전시회를 개최하며 인지도가 높아졌다.

스탬리의 이번 전시는 그가 10년 만에 하는 개인전으로, 예술적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창의성과 자아를 찾아가는 자기성찰의 계기로 마련했다고 한다. 2년 뒤 정년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30년 업력에서 손꼽는 순간을 상징하는 아치브레이 파운데이션과 그리니치 하우스 포터리

로 돌아가 작품을 제작했고, 전시를 준비하면서 6,70년대의 아티스트들처럼 제작과정을 통해 예술의 핵심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즉, "예술이란 것이 과연 완성된 오브제에서 나타나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만드는 과정의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거듭하며 작업을 진행했고 완성된 작품을 분석하고 자신의 창작 과정을 상세히 되돌아보았다고 한다. 또한, 스탬리는 영상 매체를 통해 자신에게 던진 물음을 다른 예술가들에게도 제기했다.

필자 또한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티스트 소개의 일환으로 학생들과 물레 작업을 하는 영상을 여러 개 보았다. 그는 2012년부터 2013까지 1년 동안 연례 교수 펜 스테이트 로리앗Penn State Laureate의 요청으로 그가 생각하는 예술과 삶에 대해 30개의 3~5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만드는데 참여했다. '의미있는 컵들', '생각으로 그리기', '가르치는 예술', '실수를 좋아하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름다움' 등 명쾌한 어조로 그의 생각을 토로하고 때때로 그의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그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유튜브에서 <Chris Staley, Penn State Laureate 2012-13>로 검색하면 당시에 스탬리가 제작한 영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이어지는 지면에서는 필자가 크리스에게 던진 인터뷰 질문과 답변을 소개한다.



<Touching Time> 전경

Q.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육강단에 서왔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 여전히 긴장이 되나요?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약간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해 온 덕분에 처음에 비하면 수월해졌습니다만, 그래도 긴장감은 늘 있습니다. 나는 말보다는 제작으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작품을 만들고 일해 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무언가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아트를 전공했고 대학과 대학원 졸업 후 바로 강의를 시작해서, 40년 동안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Rhode Island School of DesignLSID에서 파트 타임 강사로 학생지도를 시작했고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캔자스 주에 위치한 위치타 주립 대학Wichita State University에서,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미국 동부의 명문 펜 주립 대학Penn State University에서 지난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Q. 도에 작업을 하는 작가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다방면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술을 한다는 것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반응하고 계속적으로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예술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것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고, 작품을 만들고, 전시를 하고, 글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겹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려 노력합니다. 얼마 전에는 에카 톨레의 『현재의 힘Power of Now』을 읽었고 지금은 그의 신간 『장소space』를 읽고 있습니다. 수잔 스투어트의 『직접하지 않음Unlonging』과 메리 올리버Mary Oliver의 『시Poetry』, 엘렌 도나스키Ellen Dissanayake의 『아트와 친밀감Art and Intimacy』도 추천합니다. 2년 후면 펜스

테이트에서 퇴직하지만, 이후에도 가르치고, 배우고, 예술을 만드는 것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할 것입니다.

Q. 도예작업을 하며 배운 교훈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균열이 생기거나 소성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오는 현상을 통해, 점토가 본연적으로 무언가 되려한다는 걸 느낍니다. 당신과 흙 사이에서 상호 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가르침을 줍니다. 예술을 창조하는 과정에는 예측할 수 없는면이 존재합니다. 나는 그 불확실성을 좋아하고, 대개 제작과정에서 예상 못한 놀라움이 일어납니다. 점토는 삶 자체에 대한 일종의 은유이고, 스스로 변화하는 감각적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은퇴를 앞둔 요즘의 생활은 어떤가요?

책을 많이 읽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필하고 있는 책도 있고요. 올해 벌써 66세인데 사람들을 돕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타인을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지도한 학생들 중 교수직에 있거나 유명한 아티스트가 여럿인 것으로 압니다. 그들의 성취를 위해 당신은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누구에게나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명의 학생에 대해 그에게는 어떤 면이 있는지를 궁금해 하고 그들에게서 숨은 무언가를 찾기 위해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것은 그런 의문을 품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학생은 자신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지요. 어떤 학생은 작품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고, 어떤 학생들은 그것을 또한 남에게 가르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지원하는 일이 나의 방식입니다. 나는 그들을 정직하게 대하고 배려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실패합니다. 나와 학생 사이에 상호 신뢰가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상호 신뢰가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Q. 당신은 자신의 학생들을 예술가로 대합니까, 아니면 학생으로 대합니까?

글쎄요, 배우려는 모든 사람은 학생인걸요. 그들을 나와 같은 인간으로 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를 격려하고 작업의 강점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강점을 활용하도록 격려합니다. 열심히 작업하고 작품제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 과정을 즐길 것을 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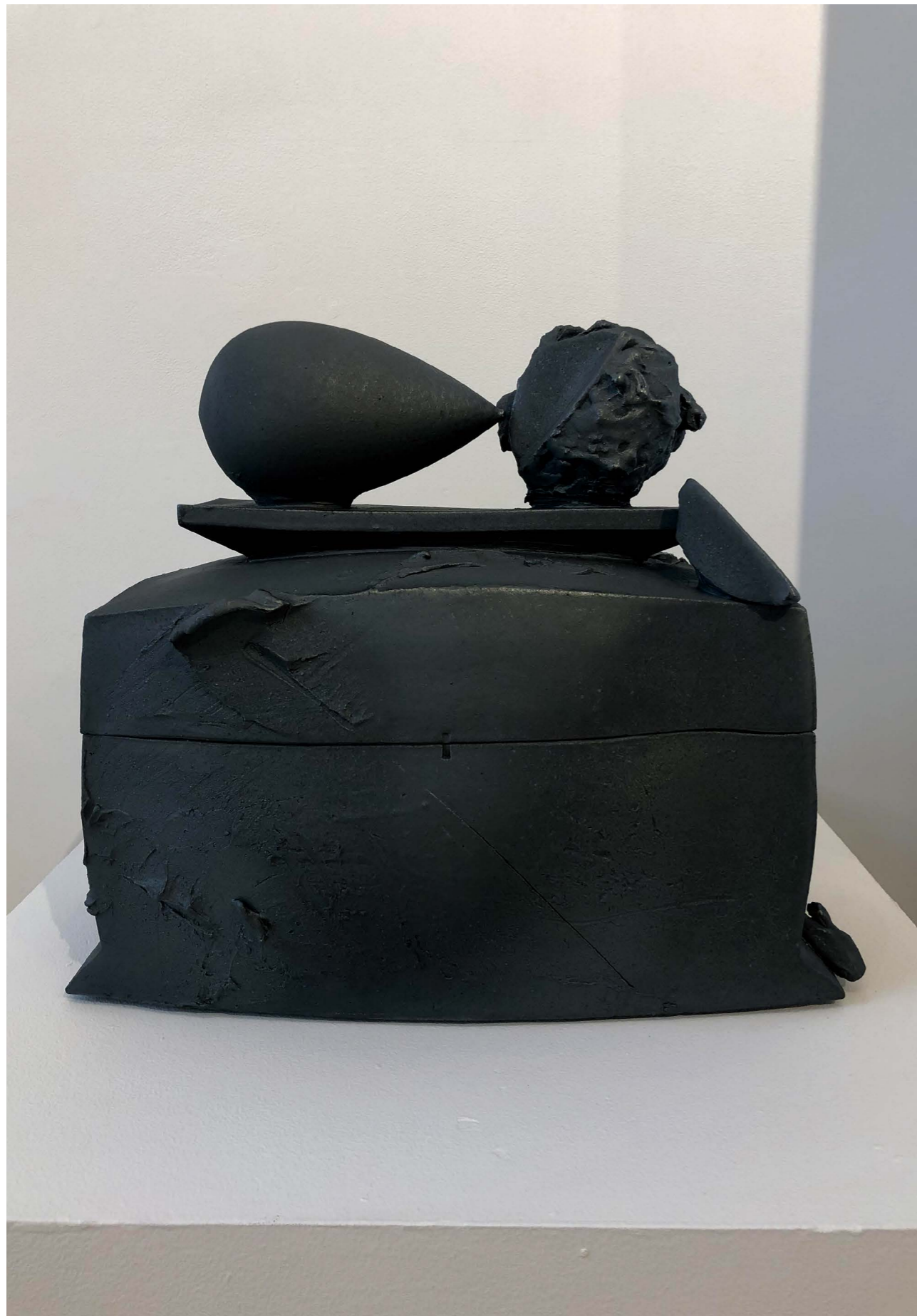
Q. 예술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신이 작업을 왜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계속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고 생각과 감정을 작품에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아티스트로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조셉 캠벨Joseph Campbell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느낌을 따르십시오Follow your bliss'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따르고, 마음이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느끼고,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확인하세요. 커리어에 대해 전략적으로만 계산하고 생각한다면 정말 위험한 일



전시장에서의 크리스 스텔리





입니다. 전문적인 커리어의 개발, 즉 어떤 시기에 대학원에 들어가고 아티스트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스튜디오를 차리고 등등의 계획들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지던가요? 당신이 마음에 둔 것, 진심으로 당신이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인식하고, 언제나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그것이 인생을 이끌도록 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손에 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시간을 들여서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Q. 당신에게 도자예술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오브제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감상하거나 그 주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피부에 난 흉터가 있고 그 흉터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자예술은 흙이라는 매개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의 의미에 감사하는데 적합한 소개라고 생각합니다.



Q.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업은 무엇입니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즐기지만 특히 켄과 대접 등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부분 기능적 용기로서 무언가를 담을 수 있고, 끊임없이 인간과 상호 작용하는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접촉하면서 사물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Q. 도예 교육에 대한 전망을 살펴본다면요.

교육은 다원화되고 개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와 사회, 삶의 방식과 밀접하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예술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은 예전과는 달라서, 작가들은 인터넷에 자신의 갤러리를 만들고 나름의 방식으로 관객들과 유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식이 훨씬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도예 역시 기법적으로, 개념적으로 다양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유일한 패러다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Instagram을 만들고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판매하고 도예학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시애틀에 있는 옛 제자 테보라 스위즈코브Deborah Schwizkov는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만들어, 작업하고 배우고 전시하고 판매까지 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작업이 문화 및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젊은 이들은 새로운 것들을 잘 수용하고, 유연하며,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젊은작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기꺼이 배우고 열심히 작업하며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세요.” 📷

작가 크리스 스탠리Christopher Staley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는 아티스트이자 1990년부터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위턴버그 대학에서 학사를 마치고, 알프레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작품은 포틀랜드 오레곤에 위치한 현대 공예 박물관을 비롯해 산타페 클레이 갤러리Santa Fe Clay Gallery (Santa Fe, NM; 2009) 및 가스 클락Garth Clark 갤러리 (뉴욕, NY; 2000)등 미국 전역의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전시했었다. 또한 중국 세계 도자박물관FuLe International Ceramic Art Museum (Fuping, 중국; 2007), EKWC (네덜란드, 2005) 및 아치Archie 브레이 재단 (Helena, MT; 2019, 2004, 1998-99)등에서 아티스트 레지던시 작가로 활동했다. Staley는 미국 국립 도자 예술위원회 회장 (2016-2018), 헤이스택 공예 학교의 Haystack School of Crafts의 이사 (2005-14), 워터 슈드 도자 예술 센터 Watershed Center for the Ceramic Arts (Newcastle, ME; 1991-94) 이사 등을 역임했다.